

21세기와  
문화  
그리고  
삶  
36

## 서재와 거실, 그리고 가구

나는 장식을 즐기지 않는다. 아돌프 루스처럼 ‘장식은 범 죄다’ 라고 극단적 단언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물건에 관한 훌륭한 기능이 우선이요, 착한 가격(합리적 가격)이 그다음 미덕이고, 약간의 심미적 만족감을 충족시켜 준다면 충분히 행복하다.

얕은뱅이 책상과 보료만을 갖춘 정갈하고 단정한 옛 선비들의 공부방처럼, 혹은 스님들의 선방처럼 비어 있어서 오히려 충만한 그런 방을 갖는 것이 최근 나의 절실한 소원이다. 도시의 좁은 집에 갖가지 살림살이와 넘쳐나는 아이의 장난감,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낡은 책에 짓눌려 사는 이 시대 지식인 주부의 한탄인 셈이다. 왜 이렇게 불필요한 물건이 많을까.

헬렌 니어링과 스코트 니어링의 ‘덜 갖고 더 많이 존재하라’ 라는 주장은 이 자본주의의 휘황한 삶에서는 실천하기 어렵다. 돌아보면 참 쓸데없는 물건들이 많지만, 정작 그 물건들을 살 때는 나름대로 절박한 이유들이 있었다. 도시에 살기 때문에 필요한 정수기, 공기청정기, 에어컨디셔너, 김치냉장고 등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더구나 ‘다시 못 올 마지막 기회’, ‘특별세일’, ‘폭탄세일’, ‘한정판매’ 와 같은 광고문구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현명한 소비’ 를 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사실 소비는 문화적인 것이다. 소비는 경제활동이자 문화활동이다. 상품과 소비는 그 시대의 문화적 의미가 담겨



마 정 미

문화평론가  
neospere@naver.com



〈사진제공 : 조선일보〉

있는 것이고, 자본주의의 동력인 소비는 함부로 배척할만한 사항도 아니다. 요즘 시대에 이덕무처럼 ‘한서로 이불삼고 논어로 병풍쳐서’ 찬바람을 막으며 잘 수는 없지 않은가. 물질이 넘쳐나는 이 후기자본주의 시대에.

봄철이 다가오자 이사철이 도래했다. 이사를 할 집을 정하고 나자 남편은 대뜸 서재를 거실로 쓰자고 주장했다. 넘쳐나는 우리 책들은 좁은 아파트 방 두 개로는 도저히 수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의 말에 나는 아연 질색했다. 지금도 책에 숨이 막히는데, 거실에 까지 책을 들여놓으면 우리 집에서 쉴 곳이라고는 안방밖에 없는 셈이다. 요즘 방들은 주로 침실의 기능이 전부인터라 침대가 들어찬 안방에 가족들이 모이거나 예전처럼 손님을 들고 찾상을 내오는 일은 거의 없다. 부부의 침실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남의

집에 가서도 안방은 열어보기 민망하다.

더구나 남편이 부지런히 사들고 오는 책들은 주로 헌책방에서 사들고 오는 책들이어서 먼지 묻고 때에 절은 책들이다. 그 책들이 거실을 빼곡히 채운다고 생각하니 한숨이 나온다. 그러나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보니 그의 말도 일리가 있다. 손님이 오면 얼마나 온다고 우리의 일상을 손님 때문에 희생해야 하겠는가. 초심으로 돌아가자 라는 생각이 든다.

사실 그는 책을 읽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의 유일한 즐거움은 헌책방을 다니며 낡은, 그러나 귀한 판본, 좋은 번역의 책들을 만나는 것이고 그 책의 먼지를 닦으며 뒤적거리는 일이 그에게는 최고의 기쁨이다.

나 역시 어릴 때부터 친구들 집에 있는 계몽사 문고나 세계명작 전집 등 그들이 가진 책들이 너무 부러웠고, 대학시절에는 벽 사방을 서가로 두르고 불을 끄고서도 자신이 원하는 책을 찾을 수 있다는 선배의 이야기에 부러워했었다. 책이 소원이었던 만큼 대학시절부터 부지런히 책을 사 들였고, 나와 비슷한 이력을 살아온 남편의 책들이 합쳐져서 우리의 신혼살림은 누가 보기에든 달콤한 신혼집 이라기보다는 헌책방에 가까웠다.

문제는 책이 많다보니 분류가 쉽지 않았고, 앤 패디먼의 『서재 결혼시키기』처럼 남편의 책과 내 책이 뒤섞여 막상 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 분명 책이 두 권이나 있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서 도서관에서 빌려보아야 하는 상황이니, 나의 소원은 서가

에 두 겹 세 겹 쌓여 있는 책을 일렬로 나란히  
꽃아 제목을 볼 수 있고 쉽게 찾을 수 있는 넓은  
서재를 갖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찌하랴. 빈 사랑방이나 여유로운  
서재를 따로 가지려면 100평 넘는 아파트나  
전원주택을 장만해야할 판이니 서민이 선택  
할 수 있는 일은 거실을 포기하는 것이다. 아  
니 거실의 개념을 바꾸는 것이다.

사실 거실을 포기하기 어려운 것은 집에 들  
아와 편안하게 쉴만한 공간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좁아져서 편안하게 쉴 공간이  
없다는 것은 좁 숨 막히는 일 아닐까? 그러니  
남들처럼 넓은 거실에 크고 비싼 소파와 벽걸  
이 TV와 오디오시스템을 갖추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아파트 구조도 똑같고  
그 안의 살림살이도 엇비슷한 상황은 몰개성  
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천편일률적으로 나까  
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

더구나 아마도 집에서 가장 넓은 공간인 거  
실을 빈 공간으로 남겨두면 그곳은 선비의 방  
처럼 고즈넉한 공간이 아니라 곧 물질적인 소  
비재들이 들어찰 것이고 우리는 또 그 물건의  
노예가 될 것이다. 대략 비싼 소파와 벽걸이  
TV, 오디오 시스템을 갖추려면 얼추 5백만 원  
은 들어가는 모양이다. 우리가 그런 사치를  
부려야 할 이유도 없거니와 그렇게 꾸며놓은  
거실은 편안한 쉼터도 되기 어렵다. 그 비싼  
가구와 가전제품들의 할부금을 갚느라고 몇  
달은 허덕여야 할 것이며, 또 그 비싼 소파에  
서 아이가 뛰어놀다가 소파를 더럽히거나 찢  
거나 TV를 상하게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

것인가. 아마도 아이가 다친 것만큼이나 속이  
쓰릴 일이다. 그러니 비싼 돈 들여 애면글면  
살 필요도 없겠다.

집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이 가장 편안하고  
효율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TV  
를 아이 곁에서 치우는 것이 과감한 결단이  
될 것이다. 이는 후배 하나는 아이가 TV앞을  
떠나지 않아서 아예 TV를 다용도실로 치워버  
렸다고 한다. 뉴스라도 볼라치면 다용도실에  
쫓그리고 봐야하는 형편이지만 아이를 위해  
서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주장한다.

거실을 서재로 만들 수밖에 없다면 최대한  
정갈하고 편안한 서재로 꾸밀 수 있도록 아이  
디어가 필요할 것이다. 마침 대한출판문화협  
회가 모 신문사와 함께 독서운동의 일환으로  
'거실을 서재로' 라는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한다. 바람직하고 의미있는 사업인데다 당장  
내 앞의 고민인지라 자세히 들여다봤다. 서문  
이 그럴듯하다.

“풍요로운 삶을 가꾸는데 가장 중요한 것  
은 상상력과 창조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생각  
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지름길은 책에 있습니  
다. 한국사회의 미래는 국민 개인과 사회의  
지식경쟁력에 달려있고, 이런 경쟁력을 획득  
하는 뿌리는 역시 독서밖에 없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를 앗아가는 TV와 컴퓨터를 안방으  
로 물리고, 거실에 서가를 마련해 온 가족이  
함께 책 읽고 대화를 나누는 거실문화를 만들  
자는 독서운동, 나아가 새로운 가족문화를 만  
들자는 취지로 2007 00일보 신년특집 ‘책



읽는 사회가 지식강국'에 연이어 연중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본 캠페인에서는 거실을 서재로 바꾸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보급형 서가와 도서를 지원하며, 각 가정에 적합한 독서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거실을 서재로 바꾸어 화목해지고 가족문화가 바뀐 가정의 성공사례를 동영상과 기사로 소개하고, 후에 독자 체험기와 디카 에세이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신청자 중에서 추천해서 서재가구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오호, 구미가 당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신청자란을 뒤져보았더니 이미 너무나 많은 신청자들이 사연을 올려놓았다. 결국 그 명단에 내 이름까지 없는 일은 포기하고 말았지만 이렇게 서재 갖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에 흐뭇해졌다.

다만 쓸데없는 걱정을 덧붙이자면 이것이 일시적인 캠페인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과 이 캠페인이 사람들에게 외형상의 변화만을 가져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어릴 적 친구 집에 있는 많은 책들을 열망하며 부지런히 그 집에서 책을 빌려 읽은 나는, 책을 많이 가진 그 집 아이가 결코 책을 많이 읽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일찍이 보았다.

책을 소장하고 서재를 꾸미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연스런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거실을 서재로 꾸미되 자식을 독서영재로 만들겠다는 집념이나 욕심은 버려야 한다. 부모가 그 서재를 활용할 때만이 자식에게 귀중한 자산을 물려줄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서재는 또 하나의 짐, 소비재가 될 것이며 교육열풍과 도시생활이 낳은 새로운 트렌드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아름다운 삶과 사랑, 그리고 마무리』에 기록된 스코트 니어링의 말을 귀담아 듣자.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갖고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인생의 본질을 이루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단지 생활하고 소유하는 것은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짐일 수도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다." (P.14)